

[천리순례 12일차] 새벽부터 세찬 비바람 맞으며 다시 27km 전진

김현태 기자

+ - 🖨️ ↺

교계 입력 2021.10.12 18:25 수정 2021.10.12 18:29 호수 1604 댓글 0

10월12일 고령 출발해 경남 땅 도착...통도사까지 128km
동국대 서울캠·경주캠 안전요원들과 의료팀 지원이 큰 힘



천리순례단의 안전은 동국대 서울캠퍼스와 경주캠퍼스가 나누어 맡고 있다. 서울캠퍼스는 10월1일 송광사부터 9일 해인사까지 책임졌으며, 경주캠퍼스는 10일부터 18일 회향지인 통도사까지 안전요원을 파견해 순례단을 지원한다.

두 번의 호각소리가 울리자 붉은색 경광봉이 일제히 춤을 추기 시작했다. 잠시 후 뒤쪽에서 빠른 속도로 내달리던 자동차가 속도를 줄여 조심스레 순례단 옆을 지나갔다.

상월선원 만행결사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이 12번째 숙영지인 경남 창녕 아메리카RV캠프파크에 도착했다. 10월12일 새벽 경북 고령을 출발한 순례단은 세찬 비바람을 맞으며 27km를 이동해 다시 경남 땅에 들어섰다. 회향지인 불보종찰 통도사까지는 이제 128km만 남겨둔 상태다.

이주면 사랑나눔 캠페인
한달 만원 후원은 마음입니다.
후원 상담 ☎ 070.4707.1080

최신뉴스

더보기 >



“철해여! 그대 오늘사 지워지지 않는 41년의 비로소 적조에 쉬게 되 상처...10·27법난 추

날마다좋은날, 세계 각국 불교영화 지역상영...
마곡사, 코로나 극복·국태민안 기원 '군왕대'...
용인 구만사, 방생법회 봉행
해인사승가대학 총동문회, 2021년 학술대회...
한국참선지도자협회, 6기 명상대강좌 수강생...
인천 용궁사, 10년 불사 원만 회향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위령제 봉행
해남 대흥사, 30회 초의문화제 개최

연재

< >

세심청심

생일과 기일



나의 발심수행

염불수행 전통표(53) - 상



최명숙의 일상의 발견

18. 흥천사 무량수전에는 턱...



무진등

구효성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이제열의 소리를 관하다

37. 목신들의 계승 판단법





통도사로 향하는 길은 쉽지 않았다. 실 새 없이 내리는 빗줄기에 인도마저 지워진 국도를 따라 걸어야 했기 때문이다. 순례단의 앞과 뒤, 그리고 중간중간 순례단의 안전을 위해 배치된 안전요원들은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도로의 상황을 전달하는 무전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눈으로는 도로의 장애물을 확인하고, 손에 든 경광봉으로 외부에 순례단의 위치를 알렸다.

천리순례단의 안전은 동국대 서울캠퍼스와 경주캠퍼스가 나누어 맡고 있다. 서울캠퍼스는 10월1일 송광사부터 9일 해인사까지 책임졌으며, 경주캠퍼스는 10일부터 18일 회향지인 통도사까지 안전요원을 파견해 순례단을 지원한다.



많이 본 뉴스

- 01 조계종 비구 66·비구니 16명, 대종사명사 품서
- 02 “지역사찰 미래, 문화 콘텐츠 개발 여부에 달렸다”
- 03 본사주지 스님들, “불교평화 정청래 의원 제명하라”
- 04 근현대 불교 이끈 구하·한암 스님 조명...“역사 바로세워 자부심 높일 것”
- 05 기림사 전 주지 철해당 종광 스님 10월24일 원적
- 06 송영길 대표 “전통사찰 문화재관람료 징수 타당...민주당 공식입장”
- 07 [천리순례 18일차] 423km 64만 발걸음 옮겨 통도사 진신사리 친견
- 08 정청래, 이번엔 문화재관람료를 극장관람료로 억지비유
- 09 [천리순례 14일차]사부대중, 한국불교 위기극복 위해 머리 맞댔다
- 10 “정청래 의원 공개참회까지 1인 시위 멈추지 않겠다”



2차 안전팀장을 맡은 권영섭 동국대 경주캠퍼스 중앙지원팀장은 “10명의 안전요원들은 모두 랜턴과 호루라기, 경광봉을 지니고 있다”고 밝힌 뒤 “랜턴으로 순례단의 가야할 길을 알려주고, 호루라기로 사부대중이 불교중흥과 국난극복을 발원하면서 순례를 진행하고 있음을 세상에 알리고, 경광봉은 우리가 하나임을 표현하고 있다”고 안전요원들이 사용하는 3가지 용품의 의미를 전했다.

그러면서 “경주캠퍼스 동료들과 함께 불교중흥 국난극복 더불어 종립대학인 동국대의 발전을 기원하면서 순례단과 함께 걷고 있다”며 “삼보사찰 천리순례가 원만히 회향할 수 있도록 순례단 외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국대의료원은 안전한 순례를 위해 '달리는 약사전' 의료팀을 파견했다.

삼보사찰 천리순례 후미에는 안전한 순례를 지원하는 또 다른 외호대중이 있다. 바로 동국대의료원에서 파견한 '달리는 약사전' 의료팀이다. 많은 인원이 하루 평균 25km를 도보로 이동하다 보니 물집과 통증을 비롯해 낙상과 같은 보다 심각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순례단이 멈춤 없이 순례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은 이들의 신속한 치료와 대응이 있기 때문이다.

의료팀장 김명숙 동국대의료원 대외협력홍보팀장은 “삼보사찰 천리순례에는 일산병원, 경주병원 등 동국대의료원이 모두 합류해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의료팀을 강화했다”며 “순례길에는 작은 통증도 큰 장애가 될 수 있는 만큼 순례단의 회향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소임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가 온 후 기온이 낮아져 감기환자 발생 등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고 있다. 회향 때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삼보사찰 천리순례 13일차 순례는 창녕을 출발해 부곡까지 27km 구간에서 진행된다. 순례단은 13일 숙영지인 부곡 로얄호텔에 하루 더 머물며, 14일 '포교진흥'을 주제로 한국불교의 미래를 준비하는 대중공사에 참석한다.

창녕=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1605호 / 2021년 10월2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당신의 1만원, 2명에게 새 삶이 됩니다

교도소·병원·군법당에 신문 보내기 010-4655-7010로 문자 '법보시'를 보내주세요

관련기사

- └ [천리순례 11일차] 거센 비바람 뚫고 걸어걸어 동쪽으로 나아가다
- └ [천리순례 10일차]해인사서 22km 나아가 경북 고령 예마을캠핑장 도착
- └ [천리순례 9일차] 화엄의 바다, 법보종찰 해인사에 들다
- └ [천리순례 8일차]벼 익어가는 길목에서 가야산을 바라보다
- └ 총무원장 원행 스님, 천리순례단 격려방문
- └ [순례단 인터뷰] 천리순례길 위에서 1주년 맞이한 주윤식 중앙신도회장

- ▶ [천리순례 5일차] 우직한 소걸음으로 지리산 넘어 남원에 닿다
- ▶ [천리순례 4일차] 강풍 몰아치는 지리산 시암재에 오르다
- ▶ [천리순례 3일차] 새벽엔 도량석·칠정례...식사 땀 오관개·축원으로 마무리
- ▶ [순례단 인터뷰] 5조 조장 지해 스님
- ▶ [순례단 인터뷰] 순례단장 원명 스님
- ▶ [천리순례 2일차] 새벽을 깨우는 맑은 목탁 소리 따라 섬진강변을 걷다
- ▶ 정혜결사도량 송광사서 불교중흥 발원 천리순례 첫발 내딛다
- ▶ [천리순례 13일차] 구름 걷힌 가을 벌판 가로 질러 부곡 입성
- ▶ [천리순례 14일차]사부대중, 한국불교 위기극복 위해 머리 맞댔다
- ▶ [천리순례 15일차] 물결처럼 늘어선 환영 현수막...밀양불자도 함께 걸었다.
- ▶ [천리순례 16일차] 느린 걸음 씬 없이 움직여 호국선양도량 표충사 도착
- ▶ [천리순례 17일차] 시월 한파 속 역사의 무설법문 지남 삼아 사자평 가로지르다
- ▶ “불교중흥의 원력 키운 시간...대중의 힘 발견”
- ▶ [천리순례 18일차] 423km 64만 발걸음 옮겨 통도사 진신사리 친견
- ▶ 삼보사찰 천리순례, 수행·전법 새 장 열었다



이메일



기사저장



공유

저작권자 ©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0개의 댓글

작성자

비밀번호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재될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 작성이 간편합니다.

0 / 400

등록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⓪_BEST댓글

매체소개 기사제보 광고문의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저작권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법인명 : (주)법보신문사 | 제호 :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발행인 : 김형규 | 편집인 : 이재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규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
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
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법보신문.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NE**